

사육시설 50㎡ 이상 양돈농가 2004년까지 등록 마쳐야

-농림부,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
(안) 의견수렴

오는 12월 27일부터 양돈업의 경우 가축사육시설 면적이 50㎡이상인 경우 축산법에 등록하고, 축종별 등록기준에 적합한 시설·장비 등을 갖추지 않을 경우 최고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부는 지난 8월 12일 지난해 12월 26일 개정된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의결하고, 오는 30일까지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양돈의 경우 가축사육시설 면적이 50㎡ 이상으로 등록기준에 적합한 시설·장비를 갖추 2004년 12월 31일까지 시장·군수 등에게 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시장·군수는 현지조사를 통해 시설·장비가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 후 축산업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또한, 축산업 등록자 등에 대한 시정명령과 관련, 3월 범위내에서 이행기간 두는 한편, 축산업의 등록을 한 자가 지켜야 할 사항으로

가축두당 최소 축사면적 확보, 축사와 농장의 청결 유지, 종돈판매시 혈통증명서 발급 등 환경친화적 축산업영위에 필요한 교육이수 의무 등을 규정했다.

또, 사업자의 명칭이나 법인의 경우 대표자가 변경되거나 종돈업과 종계업간의 변경 등 사용하는 가축 종류의 변경, 등록된 가축사육시설 면적의 100분의 20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한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축산업의 종류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10월부터 2개월간 수출부위 소비 축진 TV광고 추진

- 농림부, 하반기 돼지고기 수급 및 가격안정대책 마련

올 하반기 돼지고기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돼지고기 수출부위 소비촉진을 위한 TV광고가 제작·방영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부는 최근 돼지 사육두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소비는 위축됨에 따라 하반기 돼지고기 수급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것

으로 우려됨에 따라, 하반기 돼지고기 수급 및 가격안정대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8월 9일 밝혔다.

농림부는 우선 대한양돈협회와 농협중앙회 공동으로 오는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달간 돼지고기 수출부위를 이용한 TV 광고를 제작·방영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지하철을 통한 광고와 리후렛 및 포스터 제작·배부, 하계 휴가지에서의 시식회 등 소비촉진 행사도 개최기로 하는 등 돼지고기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자세한 내용은 본지 84페이지 참조>

충남 당진서 돼지콜레라 발생

- 경남 상주 발생 후 10여일만에 또 발생
- 발생농가에 최고 1천만원 과태료 부과키로

충남 당진군에서 돼지콜레라가 발생, 방역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다.

농림부는 당진군 합덕읍 석우리 소재 오 모 씨 양돈장에서 돼지콜레라가 발생되었다고 20일 발표했다. 이번 발생한 돼지콜레라는 지난 9일 경남 상주에서 돼지콜레라가 발생한지 10여일 만이다.

발생 양돈장은 총 1천435마리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돼지콜레라 의심 돼지 11마리를 축산위생연구소에 정밀검사를 의뢰한 결과, 양성으로 판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농장은 지난 3월 중순 당진에서 발생한 돼지콜레라 농장으로부터 10km 떨어진 곳이다.

이에 따라 오씨의 농장에서 사육되는 전체 돼지를 상대로 혈청검사 및 소독 등 방역이

실시되었으며,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역학조사를 실시 중이다. 또 감염된 돼지와 감염이 의심되는 돼지는 살처분 되었다.

한편, 농림부는 돼지콜레라가 잇달아 발생하자, "최근 예방접종 소홀로 과거 발생지인 경북 상주와 충남 당진에서 돼지콜레라가 발생하는 등 양돈농가의 방역의식이 해이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8월 20일 발생농가에 혈청검사 결과와 예방접종증명(확인)서 휴대의무 위반에 여부에 따라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돼지콜레라 방역규정 위반 농가 과태료 부과지침'을 발표하고 당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우즈벱 외국인 농업연수생 203명 입국

-8월 16일 현재, 양돈 186명 등 총 545명 농가 배정

지난달 30일과 31일 양일간 인천공항을 통해 242명의 우즈벱키스탄 농업연수생이 입국한데 이어, 8월 16일 203명의 우즈벱키스탄 농업연수생이 입국했다.

이번 연수생들은 18일까지 2박3일간 경기 오산 소재 롯데연수원에서 건강검진 등 국내 교육을 받고 대상업종과 영농규모에 따라 농가에 배정됐다.

분야별 연수생을 보면 양돈 71명, 젖소 17명, 산란계 21명 등 축산분야 111명과 시설원에 74명, 시설버섯 18명 등 원예분야 92명 등 총 203명으로, 지역별로는 경기 130명(50농가), 충남 20명(18농가), 제주 43명(23농가), 강원 9명(6농가) 등이다

이로써 지난 8월 16일 현재 양돈 186명 등 총 545명의 우즈베키스탄 외국인농업연수생이 농가에 배정됐다.

경북 상주에서 돼지콜레라 발생

- 농림부, 발생농장만 40일 이동제한 조치

경북 상주에서 돼지콜레라가 발생했다.

농림부는 지난 8월 9일 경북 상주시 낙동면 소재 한 양돈장에서 돼지콜레라가 발생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돼지콜레라 발생 농장은 900여두 규모로 최근 경북 상주 화산면 소재 모 양돈장에서 160여두의 떨어돼지를 구입한 이후 돼지콜레라 증상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농림부는 이에 해당농장에 한해 40일간 이동제한조치를 취하고, 문제의 돼지를 판매한 양돈장과 구매 농장을 대상으로 올바른 예방접종 실시 여부와 매매 과정에서의 문제 등을 조사하고 있다.

농업연수 대상업체, 일반법인까지 확대 실시

- 돈사 1천㎡ 이상 영농규모시 인원 배정기로

앞으로 농업연수 대상업체가 농업을 경영하는 업체로 확대된다.

농림부는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농업연수제도운영에관한지침'을 개정, 시행키로 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그 동안 농업연수 대상업체를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던 것을 농업을 경영하는 업체로 확대하고, 농업연수 대상품목에 오리·메추리·말·산양·사슴 사

육업 등을 추가했다.

한편, 연수생 인원배정과 관련해 양돈의 경우 1천㎡ 이상의 영농규모를 대상으로 2명 이내에서 10명 이내로 배정키로 했다.

돼지 부검시 두당 3만원 병성감정 수수료 납부

- 농림부, 병성감정·혈청검사·검역및시험·분석수수료규칙개정(안) 마련

농림부는 지난 8월 5일 가축전염병예방방법의 전문개정에 따라 병성감정·혈청검사·검역 및 시험·분석수수료규칙 개정시안을 마련, 16일까지 관련기관·단체의 의견을 수렴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축전염병예방방법 제 12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자 또는 신고를 받은 시장·구청장 등이 시·도 가축방역기관장·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또는 검역원장이 지정한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에 의뢰하는 병성감정과 수의과학기술에 관한 시험 또는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에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돼지 부검시 두당 3만원, 혈액 검사시 두당 3천원 등의 병성감정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축분 액상폐수 정화처리시 분리·저장 시설 설치 면제

- 환경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령' 공포

앞으로 축산분뇨를 퇴비화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액상폐수만을 정화처리하는 경우에는 축분 분리·저장시설의 설치 의무를 면제

받을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지난달 25일 지난해 12월 개정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의 후속조치로 시행령을 개정·공포했다.

이에 따라 축산폐수를 퇴비화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액상폐수만을 정화 처리하는 경우와 축분을 분리하지 않고 처리해도 방류수 수질 기준을 준수할 수 있다고 환경부 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술을 적용해 처리하는 경우에는 축분 분리·저장시설의 설치 의무가 면제된다.

농림부, 농업식품농촌부로 개명 추진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 발표

농림부의 명칭이 '농업식품농촌부'로 변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농림부는 지난 7월 28일 '주요 농림추진 현황' 자료를 통해 이날 오후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최근 농림부 기능이 종전 생산 및 수급조절 위주에서 식품안전, 농업인 소득, 농촌 개발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음에 따라 부처 명칭을 '농업식품농촌부'로 바꾸고, 내부 조직도 재편하되 주니오보드 등을 통한 상시 혁신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한편, 농림부는 부처 명칭 변경 문제에 대해서는 8월 중 정부혁신위원회와 협의할 예정이다.

농업용 면세유 관리 더욱 강화될 듯

농림부는 최근 농업용 면세유 공급제도와 관련해 면세유의 부정유통을 막기 위해 재경

부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부는 농업용 면세유 부정유통을 막기 위해 현행 유통기간이 최장 12개월인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권의 유통기간을 발행일로부터 1개월로 축소하고, 면세유 부정유통에 대한 처벌 강화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등 지역별 청정지역 축산물 수입 '비상'

- 농림부, 국내 수입위험분석 지침 마련·대응 키로

중국 등 가축질병 발생국가의 지역별 비발생이 인정되면서 가축질병 발생국가로부터의 축산물 수입을 막기 위한 '동물 및 축산물 교역관련 협의회'가 지난 8월 4일 개최되었다.

최근 WTO/SPS 협정에서는 제6조 제2항에 '병해충 안정지역(비발생지역)과 병해충 발생이 적은 지역의 개념을 인정'하도록 규정할 계획이다.

이에 농림부는 본회 생산자단체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농림부 통상협력과 등의 관계자가 모인 가운데 이같은 협의회를 개최하고, 올해 말까지 수입을 거부할 수 있는 우리나라 자체적 수입위험분석 지침을 마련키로 했다.

2003우리축산물브랜드경진대회 및 전시회 개최

-10월 31일부터 3일간 aT센터 전시관서

'2003축산물브랜드경진대회 및 전시회'가 오는 10월 31일(금)부터 11월 2일(일)까지 3일간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소재 aT센터(서울농

업무역센터) 1, 2전시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농림부가 주최하고,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농협중앙회 공동주관으로 실시되는 이번 행사는 축산물브랜드 경진대회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의 브랜드 축산물과 축산물가공품, 축산물관련 기자재가 전시된다.

또한, 행사 기간 중 본회를 비롯해 생산자단체별로 축산물 경품지급 이벤트 행사 등 브랜드축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활동이 전개되며, 우리축산물 요리솜씨 대회, 도전 축산물 퀴즈대회, 전국 축산인 노래자랑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가 펼쳐질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우수 축산물브랜드 집중 육성 및 홍보를 강화하고, 우리 브랜드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 제고, 우수 축산물브랜드 업체와 유통업체간 판로연계를 통한 소비편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치러진다.

살처분 가축 보상금, 방역조치 이행정도 따라 차등지급

앞으로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해 살처분한 농가에 대해서는 방역조치 이행정도에 따라 살처분 가축보상금이 차등 지급된다.

농림부는 지난달 29일 이 같은 내용의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령개정령'을 공포, 시행키로 했다.

동법 개정령에 따르면,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에게는 생계안정비용이 지원되며, 살처분한 가축의 보상금 등 지급시에는 가축소유자의 신고의무의 이행 여부, 이동제한명령의 이행 여부, 및 소독실시 등 방역조치의 이행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또한, 구제역·돼지콜레라·광우병 등의 질병

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가축에 대해 이동제한명령을 위반하거나 병명이 불분명한 질병으로 죽은 가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6월의 가축사육시설폐쇄명령을 하거나 가축사육시설에서 사육되고 있는 전체 가축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안에서 가축의 사육제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금년 중 돼지고기 부분육 등급표시제 추진

돼지고기 부분육 등급표시제 시범사업이 빠르면 금년 중에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축산물등급관정소(소장 정동홍)는 지난 8월 8일 돼지고기 부분육 등급표시 시범사업을 추진키 위해 관련기관 및 업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등급관정소는 이날 회의에서 "돼지고기 부분육 등급표시제 시범사업을 통해 돼지고기 부분육 규격화를 촉진하여 물류표준화와 공정거래에 큰 도움을 주는 동시에 돼지고기의 품질 향상과 소비편익 증진에 큰 도움을 될 것으로 보인다"며, 빠르면 금년 중에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축사내 모기퇴치등 설치로 질병 발생률 감소

- 모기매개 전염병 질병 발생률 3.5% 감소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이 추진 중에 있는 여름철 축사내 모기퇴치등 설치 시범 사업이 실효를 거두고 있다.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이 도내 5개 시·군 25

농가를 대상으로 모기퇴치 등 설치 시범사업을 추진한 결과, 시범사업에 참여한 농가들이 모기퇴치 등 설치 후 가축의 사료효율이 눈에 띄게 좋아진 것을 확인했다.

농업기술원 관계자는 “모기퇴치 등은 해충 퇴치용 특수전구(일명 엑셀전구)를 이용, 전구에서 모기가 싫어하는 특정 파장을 발산시켜 모기의 접근을 막는 것으로 타이머 스위치를 설치해 해가 지기 전에 점등했다가 다음날 해뜨기 전에 소등하면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또한, “모기퇴치 등을 축사에 설치하면 돼지와 소의 일당증체량이 평균 21% 증가할 뿐만 아니라, 모기매개 전염병 등 질병 발생률도 3.5% 감소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우리 농축산물 학교급식 사용 '명문화'

- 나주시·나주시의회 '학교급식조례' 제정

전남 나주시와 나주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학교급식에서 우리 농축산물을 사용하도록 하는 조례를 마련해 향후 학교 급식법 개정 운동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나주시는 최근 “국산 농축산물의 소비촉진과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위해 전국 최초로 우리 농축산물 학교급식지원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학교급식 국내산 농축산물을 사용하고자 희망하는 초·중·고등학교

제1회 아시아양돈수의사대회 개최

- 오는 9월 21일부터 3일간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한국양돈수의사회와 아시아양돈수의사회(APVS)가 주최하고, 본회와 농림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대한수의사회 등이 후원하는 제1회 아시아양돈수의사대회가 오는 9월 21일부터 23일까지 사흘간 서울 양재동 소재 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된다.

제1회 아시아양돈수의사대회는 ▲전신성 소모성증후군(PMWS) ▲돼지번식기호흡기증후군(PRRS) ▲돼지콜레라(CSF), 구제역(FMD) ▲호흡기 질병(Respiratory Diseases) 4가지 주제를 가지고 치러진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미국 미네소타 주립대학교 주한수 교수와 아이오와 주립대학교 윤경진 교수가 초청강사로 초빙되어 더욱 행사를

를 빛낼 예정이다.

아시아양돈수의사대회는 아시아 각국의 양돈산업의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양돈 생산기술과 질병 예방기술을 교류하며, 아시아 각국의 양돈신기술 개발 및 보급을 목적으로 개최된다.

이번 대회는 양돈질병과 위생, 생산, 유통 등 수의사들과 동물학자들, 생산자들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 새롭게 혁신적인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이며, 국제적인 13명 저명인사의 강의와 함께 현장 수의사들의 현장사례를 들을 수 있는 유익한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의: 011-244-0212 이권희 수의사

새 농림부장관에 허상만씨 임명



허상만 농림부장관

신임 농림부 장관에 허상만(59) 순천대 농업생명과학대 교수가 임명됐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7월 24일 허상만 교수를 새 농림부장관에

임명했다.

허상만 신임 농림부장관은 전남 순천 출신으로 순천고를 나와 전남대에서 농학박사를 취득했고, 순천대 농대 교수와 미국 미주리대·코넬대 객원 교수, 순천대 총장, 순천 경실련 공동대표 등을 지냈다. 허 농림부장관은 현재 순천 경실련 고문과 순천대 농업생명과학대 식물생산과학부 교수로 재직 중에 있다.

대상으로 학교급식에 친환경 농축산물을 공급하며, 교육청 및 각급학교를 통해 식재료 구입비를 예산의 3억원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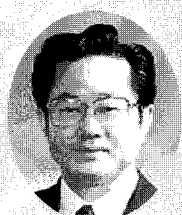
올 상반기 PED 발생두수 큰 폭 증가

- AD는 큰 폭 감소, TGE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아

올 상반기 돼지유행성설사병(PED)이 전년 동기 대비 큰 폭 증가한 반면, 돼지오제스키병(AD)은 큰 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발표한 올 6월 가축전염병발생월보에 따르면, 올 상반기 돼지유행성설사병 발생 두수는 57농가 16,509두로 전년 동기 대비 30농가 7,116두에 비해

농어촌특별대책위원장 장원석 단국대 교수 위촉



장원석 위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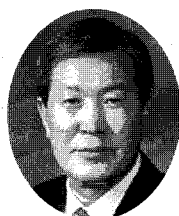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7일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에 장원석(56) 단국대 경상학부 교수를 위촉했다.

신임 장원석 위원장은 경기도 안성 출신으로 안법고와 고려대를 졸업했으며, 농림부 농정기획단 단장과 경실련 농업개혁위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농업정책학회 회장을 맡고 있다.

137.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오제스키병은 5농가 81두로 전년 동기 대비 25농가 1,018두에 비해 큰 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행성설사병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마사회 회장에 박창정씨



박창정 회장

박창정 한국마사회 부회장이 회장으로 임명됐다. 신임 박 회장은 전북 무주 출생으로 지난 74년 12월부터 농림부에 근무하면서 농업금융과장, 기획

예산 담당관 등 주요 보직을 거치면서 농업금융제도, 중장기 농촌발전계획 수립 등 농정기획분야에서 능력을 인정받았다.

또한, 98년 6월에는 농림부 기획관리실장, 차관보를 역임하고, 2001년 5월 한국마사회 부회장으로 근무해 왔다. **양동**